

김학범호,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공식전...“시작이 반”

내일 오후 5시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1차전 치뤄 축구, 2012 런던올림픽 이후 9년 만에 메달 도전 올림픽 첫 공식 경기 오늘 女소프트볼 일본-호주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오는 23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한국 선수단의 시작은 김학범호가 이끄는 축구대표팀이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올림픽 개최식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5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올림픽 남자 축구 B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금메달 7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유지를 목표로 한 한국 선수단(29개 종목 선수 232명 포함 총 354명) 중 가장 먼저 공식 경기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17일 결전의 땅 도쿄에 임성해 박지성 선수를 전출하고 전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축구대표팀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이후 9년 만에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나라타공항 도착 후, 엄격한 방역 수칙에 따라 입국 절차를 밟는데만 5시간이 걸렸지만 선수들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다행히 선수단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이는 없다.

한국은 B조에서 뉴질랜드를 비롯해 루마니아(25일), 온두라스(28일)와 토너먼트 진출을 다툰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출전해 4개국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2위가 8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

하(U-23) 챔피언십 우승의 주역인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이상 울산), 정태욱, 정승원, 김재우(이상 대구)가 대거 승선했다. 이 대회는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을 겸했다.

또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이강인(말레이시아)이 합류했고, 연령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25세 이상 선수)로 황의조(보르도), 권창훈(수원 삼성), 박지수(김천)가 뽑혔다.

당초 수비의 핵 김민재(베이징 귀안)가 이들을 올렸으나 소속팀의 반대로 박지수가 대체로 합류했다.

국내에서 가진 강호 아르헨티나(2-2 무), 프랑스(1-2 패)와 마지막 두 차례 평가전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김학범호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전통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다.

뉴질랜드와 첫 경기 열리는 가시마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긴급 사법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관종 경기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는 현지 거주 학생 100~200명 가량만 관중석을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무관중 경기다.

합성 없는 올림픽의 출발선에 선 김

학범호다. 더위와 코로나19 위협으로 답답한 선수단에 시원한 꿀과 승리를 선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도쿄올림픽 전체 일정 중 첫

번째는 21일 오전에 열리는 여자 소프트볼 일본-호주의 경기다. 이날부터 여자 소프트볼, 여자 축구가 일정에 돌입한다.

뉴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대표팀 출정식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송민규가 상대와 충돌하고 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송민규, 전복으로 이적

계약기간 4년6개월 조건

2020 도쿄올림픽에서 9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의 송민규(22)가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전북 현대에 새롭게 등지를 한다.

전북은 20일 “포항에서 뛰었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송민규와 계약기간 4년6개월 조건으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2018년 포항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송민규는 이듬해 27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렸고, 지난해 27경기에 출전해 10골 6도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생애 한 번 뿐인 영플레이어상도 수상했다.

이번 시즌에는 16경기에서 7골로 가공할 골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 프로 통산 78경기(FAP 포함)에서 20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송민규는 지난달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스페인과의 홈경기 A매치에 데뷔했고, 현재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에 승선해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지난 17일 도쿄에 입국해 오는 22일 뉴질랜드와 1차전을 앞두고 있다.

김상식 전북 감독은 “송민규의 영입으로 측면 공격의 선수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공격에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기에 때문에 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규는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팀에 합류한다. 등번호는 21번을 단다. K리그 최초 5연패에 도전하는 전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김경문 감독 “일본 신경 안 써, 우리 것만 준비”

고영표·최원준·원태인·김민우 라이브 피칭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2일차 훈련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금메달도 없다”고 외치는 일본과 달리 산전수전 다 겪은 한국 야구대표팀 김경문 감독은 상대를 크게 담아두지 않는 눈치다.

여기에는 지금 멤버들과 토폴 문

채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김 감독은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바바 아쓰노리 일본 감독

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바바 감독은 지난 18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팀이나 경계하지만 한국은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금메달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삼성)과 양의지(NC)가 버티는 포수진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결의에 찬 이바바 감독과 대조적으로 김 감독은 무척 차분했다. “나도 인터뷰는 봤다”는 김 감독은 “그건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우리 것만 열심히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소집 사흘 만인 지난 19일 하루를 쏙 쏙 대표팀은 이날부터 다시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발 투수를 가리기 위해 타자들의 컨디션 끌어올리기를 위한 라이브 피칭이 이뤄진다.

이날 시합대에 오르는 이는 고영표(KT), 최원준(두산), 원태인(삼성), 김민우(한화)다.

“나름 그림은 그리고 있다”는 김 감독은 “컨디션이 중요하다. 열심히

보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선수를 첫 경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6개팀이 참가하는 올림픽 야구는 경기수가 적고, 일정이 짧아 초반부터 흐름을 잃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9일 이스라엘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대표팀도 이를 뒤 만날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보다 이스라엘 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지만 야구는 모른다. 첫 경기 선제점을 뽑고 시작해야 한다”는 김 감독은 “투수들은 제법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걱정되는 건 타자들의 실전 감각이다.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였다.

국제대회 때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스트라이크 존 적음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반응이다. 김 감독은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와 우리를 똑같이 보면 신경 쓸 것은 아니다”면서 “(타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투수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뉴스

펜싱 오상욱, 생애 첫 올림픽서 2관왕 정조준



남자 펜싱 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25)이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오상욱은 김정환, 구본길과 함께 오는 24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다. 대회까지 4일을 남겨둔 오상욱은 마지막 컨디션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상욱은 지난해 미디에테이에서 압도적인 포인트로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상욱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한국 사브르 단체전 세계랭킹도 1위여서 금메달이 예상된다. 남자 사브르에서 2관왕 탄생이 기대된다.

그러나 오상욱은 올림픽 출전이 처음이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부담감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한국 펜싱은 도쿄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자 펜싱 사브르 세계랭킹 1위...24일 개인전 출전 예정 김정환·구본길과 단체전도 금메달...“컨디션 끌어올릴 것”

대회 초반 펜싱의 선전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톱10’ 목표도 가능하다.

도쿄올림픽에는 남녀 플뢰레·에페·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등 총 1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남녀 사브르,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 남녀 플뢰레 개인전에서 출권을 확보했다.

오상욱의 올림픽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코로나 확진에 발목 부상을 당해 한동안 컨디션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근력이 떨어져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오상욱은 지난해 미디에테이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공백이 있었

다. 대회 전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이 좋은 유럽 선수들을 경계했다.

오상욱은 “유럽 선수들은 모두 다 잘한다. ‘이긴다’, ‘진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히, 헝가리, 독일 등 유럽 선수들은 피지컬이 좋다. 빠르기도 해서 상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상욱의 장점은 192cm의 큰키와 함께 빠른 발이 강점이다. 많은 경기 경험을 통해 노련미도 더해져 선전이 예상된다.

가장 최근 오상이 출전한 국제 대회는 지난 3월 2021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이다. 오상욱은 개인전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오상욱의 라이벌은 세계랭킹 4위 이란 실라지(31·헝가리)다.

실라지는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실라지는 도쿄올림픽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오상욱과 실라지는 준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전적에서 6승 4패로 오상욱이 근소하게 앞선다.

뉴스

조코비치 “애국심에 올림픽 출전 결심”

‘골든 슬램’을 노리는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4·세르비아)가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코비치는 20일(한국시간) 몬테네그로의 MIN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과 US오픈은 남은 시즌 동안 나의 가장 큰 목표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르비아를 대표한다는 사실도 동기부여가 된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후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US오픈이 열리는)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조코비치는 도쿄올림픽에 앞서 열린 3개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윌빙던에서 내리 정상에 섰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올해 US오픈까지 우승하면 조코비치는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골든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조코비치는 “무관중 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이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애국심 때문에 올림픽 출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뉴스